



연간보고서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너그러움으로 2021년 한 해 동안 총 9천만 유로 이상을 원조 프로젝트에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고통받는 형제자매들을 대신하여, 코로나19 대유행에도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갚아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코로나19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ACN은 미사예물 지원과 수도자 생계지원을 통해 많은 국가에서 교회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지원을 통해 사제와 수도자들이 신자들을 위한 사목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또다른 우선순위 중 하나는 중동의 그리스

도교 신자들, 특히 레바논의 신자들이 그들의 고향 땅에서 계속해서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작년 한 해 전세계적 불확실성의 증가 속에서도 후원자분들의 마음을 보다 넓게 열어준 것은 하느님의 섭리였다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과 함께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반대하는 끊임없는 박해뿐만 아니라 끔찍한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교회가 대처하도록 저희 ACN이 지원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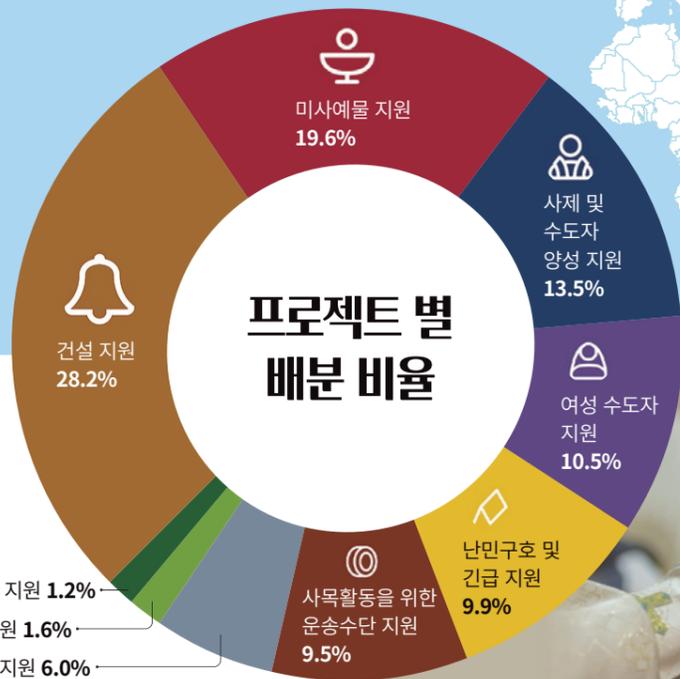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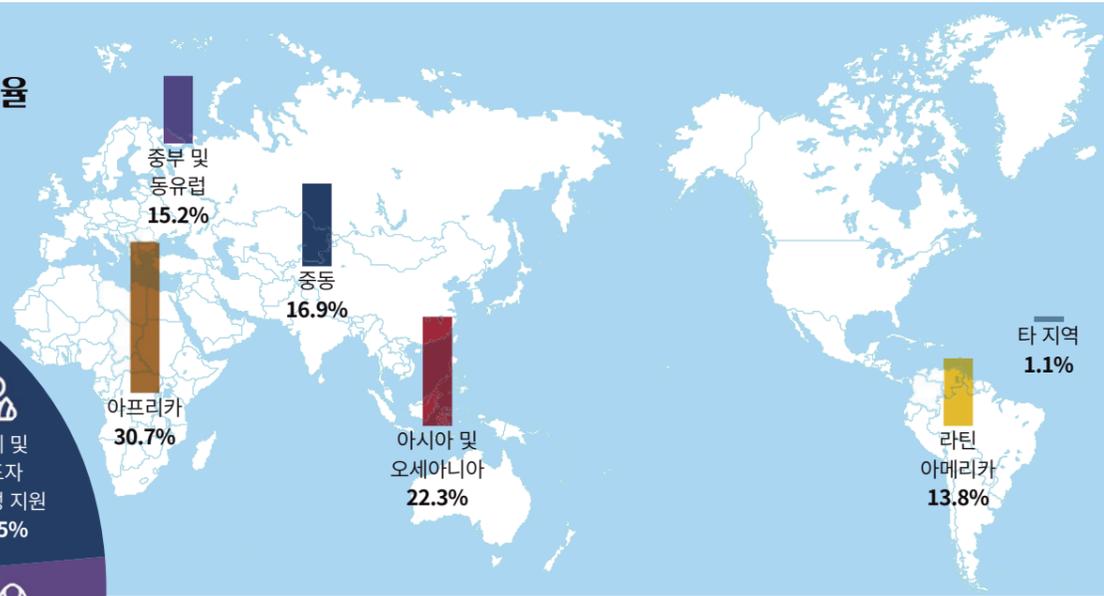


ACN 수석대표

토마스 하이네겔던 

여러분의 후원과 사랑이 전해진 곳

지역별 원조 비율



2021년 한 해 동안 ACN은 5,298개의 프로젝트를 지원했습니다.

이는 2020년 보다 540건 증가한 수치입니다. 안타깝게도 작년에 이어 올해도 많은 프로젝트(735개)를 반려해야 했지만 과거에 비해 그 수가 감소했습니다. 지원 요청도 6,782건으로 증가했습니다. 프로젝트별 평균 지원 금액은 17,158 유로(약 2,322만 원)이었습니다. 132개국 1,181개 교구에서 진행된 프로젝트 중 규모가 가장 작은 것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일학교 활동을 위한 포스터 제작이었고, 가장 큰 프로젝트는 이라크 카라코쉬 지역의 알타히라 가톨릭 고등학교 지원이었습니다. 이는 ACN이 전 세계 3,026개 교구 중 3분의 1 이상을 지원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교리교사 및 평신도 활동가 37,745명을 지원하였고, 그 중 절반 이상은 아시아에 지원하였습니다. 반면, 종교서적 및 출판 지원은 절반 이상이 라틴 아메리카 국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 전 세계 23개국에서 모금 활동을 위한 지부 운영
- 전 세계 34만 7천명 이상의 후원자
- 기부, 유산 증여 등을 통한 총 수입 133,124,304 유로(약 1,800억 원)
- 전 세계 132개국의 ACN 프로젝트 파트너기관을 통해 5,298개의 프로젝트 지원
- 지원비의 82.4% 사목활동 연계 지출

건설 지원 949건

전체 지원비의 3분의 1은 성당 및 경당 건설을 위해 투입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사제관, 수도원, 사목 센터 및 신학교도 포함됩니다. 건설 사업 중 37% 이상은 아프리카에 지원하였으며, 동유럽, 라틴아메리카, 아시아와 중동에도 지원하였습니다.



미사예물 지원 2,095,677회

2021년에 약 210만 대의 미사가 ACN의 지원으로 봉헌되었습니다. 이는 2021년 한 해 동안 세계 곳곳에서 매 15초 마다 ACN 후원자분들의 지향으로 미사가 봉헌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전 세계 사제 414,336명 가운데 8명 중 1명이 ACN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특히 아시아에서는 사제 19,313명이 여러분이 지원해주신 미사예물로 사목활동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신학생 지원 13,381명

전 세계 신학생 114,058명 가운데 8명 중 1명이 ACN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아프리카가 7,654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라틴 아메리카(2,461명), 아시아(1,724명)가 뒤를 이었습니다. 신학생 지원은 사제직을 준비하는 이 젊은이들의 심리적 영적 성장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여성 수도자 사도직 활동 및 훈련 지원 18,473명

ACN은 전 세계 여성 수도자 630,099명 가운데 34명 중 1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대부분 활동 수도자와 봉쇄 수도자의 사도직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하였으며, 수도자 교육, 양성 및 피정을 위해서도 지원하였습니다.



사목활동을 위한 운송수단 지원 1,338건

2021년에 ACN은 사목활동을 위해 자전거 539대, 자동차 539대, 오토바이 245대, 보트 7척, 버스 5대, 트럭 3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운송수단이 지원된 지역은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사업 지원 583건

교회의 코로나19 대유행 극복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2021년 코로나19 관련 사업 583건에 9,668,237 유로(약 131억 원)를 지원했습니다. 대부분의 지원비는 아시아와 동유럽의 사제 및 여성 수도자들의 활동을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 지출 상세내역

- 총 지출 금액 1억 2,850만 유로(약 1,739억 원)
- 사목활동 연계 지출 82.4%(1억 590만 유로, 약 1,433억 원)
- 모금 및 정보 활동 10.9%(1,400만 유로, 약 189억 원)
- 행정(운영비) 6.7%(860만 유로, 약 116억 원)

⊕ 사목활동 연계 지출

- 사업 지원 87.6%(9,280만 유로, 약 1,256억 원)
- 정보, 복음화 및 옹호 활동 12.4%(1,310만 유로, 약 177억 원)
- ACN 연간보고서는 PwC의 감사와 검토를 받았습니다.
- 환율: 1유로=1353.4원 적용 (2021년 평균환율)

하느님 이끄심의 기적

2021년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느님 이끄심의 기적을 보았고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기부금은 약 1억 3,300만 유로(약 1,800억 원)로 역대 최고 모금액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고통받는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많았기에 원조의 손길이 절실했습니다.

아시아 교회는 코로나19로 심각한 영향을 받았고, 특별히 인도는 그 타격이 더 컸습니다. 여러분의 미사 예물 지원은 약 14,800명의 인도 사제들과 본당 신자들에게 유일한 생명줄이었습니다. 아시아 교회를 위한 ACN의 지원은 2020년 18%에서 2021년 22.3%로 증가했습니다.

반면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에서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폭력이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 사제 및 수도자 수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아프리카는 이토록 엄청난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ACN은 이 지역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 총 원조 예산의 30% 이상이 아프리카에 지원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총 지원비 중 16.9%가 배분된 중동에서 ACN의 우선순위는 시리아와 레바논이었습니다. 시리아와 레바논의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자신의 조국을 떠나 실랑민이 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그리스도교 공동체로서 자국 내에서 안전하게 생존할 수 있도록 돕는 긴급지



원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습니다. 기금 중 15.2%가 지원된 동유럽에서는, 전쟁 전부터



우크라이나를 중점적으로 지원해왔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에는 13.8%를 지원하였습니다.

프로젝트 별로는 그 규모가 큰 건설지원이 총 기금의 28.2%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원비의 1/5은 미사예물 지원, 그리고 또다른 1/5은 사제, 수도자 및 교리교사 양성 지원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폭력, 박해 또는 강제이주의 문제로 위협을 받는 그리스도교인들을 위한 긴급지원으로 약 10%가 쓰였습니다. 또한, 2021년에도 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으로 인해 여성수도자 지원비가 10.5%로 증가하였습니다.

여러분의 도움 덕분에 수천명의 사제, 수도자, 평신도들이 그들의 사도직 활동에 희망과 용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갚아 주실 것입니다. ⊕